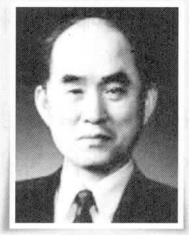
영국여행기

아서왕(King Arthur)유적지, 성배우물(Chalice Well)과 스톤헨지(Stonehenge)

Great Britain's Travels



글 | 成 平 健
(Sung, Pyeong Keon)
화공기술사, 제이스텝(주) 회장.
E-mail : reminda9@hanmail.net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 아서왕 유적지, 성배우물과 스톤헨지 등을 둘러보았다. 필자에게 영국은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하다. 1967년 한국비료(현 삼성정밀화학)의 시운전을 마치고 영국에서 1년여 산업체와 대학(노팅햄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은 바 있었고 삼성석유화학 재직 시에는 영국의 BP(British Petroleum)사가 보유한 초산기술을 도입해 삼성BP화학을 설립한 바 있다. 1994년 삼성을 떠나 레민다 파동육각수공장을 건설할 1995년 10월 20일 스톤헨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영국을 찾은 것이다.

틴터글 성(Tintagel Castle) 아서왕 탄생지

3월 21일 오후 1시 10분 서울을 출발하여 11시간여 걸려 같은 날 오후 4시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였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서왕이 태어나 생활했다는 틴터글은 영국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곳이다. 야간열차와 버스로 두 번 환승하여 틴터글에 도착한 것이 다음날 아침 10시였다. 호텔에 짐을 풀고 틴터글 성으로 갔다. 틴터글은 평화로운 작은 마을로 해변을 끼고 있으며 아서왕 유적지의 관광 사업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성은 바닷가의 구릉(丘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곽과 유적 돌만 남아 있었다. 방문한 날은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오르내리기가 위험하여 성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기가 나쁜데도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아서왕이 살

아생전에 살던 곳이니 주변의 자연 -흙, 돌, 물, 바람 등- 속에 그의 영혼이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성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주변을 2시간여 걸어 다녔다.

아쉬운 마음에 점심을 먹고 한 번 더 성으로 가보았다. 여전히 강풍이 수그러들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서 1시간여를 거닐었다. 이곳에서 살았던 아서왕의 발자취와 에너지를 충분히 느껴 보고 싶어 같은 곳을 세 번이나 방문했다.

시내를 관광하다가 아서왕의 기념관에 들러보았다. 이곳에서 기사들이 지켜야 될 13가지의 원칙을 적은 소책자도 구입할 수 있었다. 원탁(Round Table)은 기사 간의 좌석 배치가 차별 없이 평등해야 되므로 원탁의 모양을 했다고 한다. 원탁에는 13명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아서왕은 기사들과 함께 켈트족을 지휘하여 유럽을 정복하고 영국의 왕이 된다. 16세의 어린 아서는 런던 사원(abbey)의 대리석에 꽂혀 있던 큰 칼을 뽑아 왕으로 추대됐다는 전설이 있다. 호수의 요정(The Lady of the Lake)이 그에게 건네 준 엑스칼리버(Excalibur)라는 칼을 칼집(scabbard)과 함께 지니면 전쟁에서 칼을 맞아도 결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군은 실재한 인물이지만 단군신화가 있는 것처럼, 영국의 신화인 아서왕도 전설이 아닌 실제 인물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아서왕이 이끈 기사의 전성시대는 5~6세기였으므로 지금부터 일천오백여년전의 일이다. 기사도 정신에 충실하고 용맹했던 그들이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만약 21세기에 아서왕이 되살아난다면 그의 사명은 무엇일까? 아서왕의 위대한 삶과 철학을 접하고 나서 느낀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적(敵)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고 각자 속에 내재하는 마이너스 에너지(=카르마)이다. 아서왕은 칼로 목을 벨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진 창조성이라는 무기로 마이너스 에너지를 격파하여 의식의 혁명을 이루어 내는 즐거운 전쟁을 할 것이다. 인간이 지닌 위대한 창조성을 활용하여 인간 속에 내재하는 마이너스 유전적 에너지를 청소하게 되면 인간은 성장,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성배우물 – 신비의 물

틴터글을 떠나 버스와 기차를 네 번이나 바꾸어 타면서 12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곳이 글래스턴베리(Glastonbury)이다. 이곳은 아발론시티(Avalon city)라고도 하며 "사과의 도시", "삶과 죽음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예수의 삼촌인 요셉(Joseoh of Arimathea)이 이곳을 방문하여 지팡이를 땅에 꽂은 곳에 월계수 나무가 자라나 현재 큰 나무로 자라고 있다.

13세기에 건설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글래스턴베리 대수도원(Glastonbury Abbey)는 현재는 석재의 기둥만 남아 있으며 아서왕과 왕비인 기니비어가 묻혀 있는 석관을 이곳에서 발견하여 같은 경내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 높이 165m의 언덕인 성배언덕(Chalice Hill)의 꼭대기인 글래스턴베리 바위산(Glastonbury Tor)에는 교회 건물의 유적이 있으며 그 밑에는 거의 800여 년 동안 철분(Fe)의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인 성배우물이 있다. 1751년에는 이곳 샘물의 치유 사례집이 발간되었는데 치유된 질병 가운데는 장님, 궤양, 귀머거리 등 불치로 알려진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물의 질병치유 사례가 널리 알려져 영국 내외에서 하루에도 1만여명의 환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물을 마시고 있지만 옛날 같은 기적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았다.(사진참조)

예수가 생전에 글래스터베리를 방문했다고 하고 성배(聖杯:Grail)가 성배언덕의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전설도 있다. 역사적 전설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곳은 성스러운 유적지로서 옛날에는 영국과 유럽에서 순례자가 많았다고 한다. 예수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이곳 글래스턴베리를 방문한 날이 부활절(3월 23일)로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붐비고 있었다.

필자는 부활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다. 이러한 사랑을 인류의 마음속에 부활시켜주는 날이 부활절이다"라고.

스톤헨지 – 거석 문화의 세계적 유산

글래스턴베리에서 버스로 1시간 20여분 걸려 도착한 곳이 솔즈베리(Salisbury)이다. 이곳에서 버스로 불과 20분 거리에 스톤헨지가 있다. 스톤헨지는 세계 7대불가사의의 하나로 유엔에 등재된 세계문화 유산으로 신비감이 감도는 거대한 돌의 서클이다.(사진 참조)

스톤헨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 별자리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기후의 변화와 하늘의 변화가 주는 삶의 운명을 예측하는 천문대의 역할을 했다.
- 대자연의 혜택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기원하는 주요 의식을 개최하는 장소였다. 스톤헨지의 중심에는 의식에 사용된 제단이 있다.
-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아 명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활용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생명력이 활성화되어 힐링(Healing)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

- 이 지역은 국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이 모여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장소로 활용했다. 정치가는 하늘의 창조적 뜻에 부합하도록 주요의사를 결정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스톤헨지를 이루는 돌은 작은 것이 8톤, 큰 것은 45톤이나 된다고 한다. 스톤헨지는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세계적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16세기 중반에 제임스1세는 당시의 건축학자들과 고고학자들로 하여금 스톤헨지의 비밀을 알아내게 했다. 그 당시의 발견으로 스톤헨지가 영국역사의 찬란했던 고대문명을 증명하는 유적이라고 믿었다. 인류의 선조가 남긴 스톤헨지는 그 당시의 비밀을 그대로 간직하고 無言의 대화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다.

필자는 돌을 무척 좋아한다. 어쩌다 강, 산, 바닷가와 들판에 나가면 마음에 맞는 돌을 한 점 정도는 줍는다. 이번 여행에서도 필자는 틴터글 성의 바닷가에서 멋진 돌을 한 점 주웠다. 이 돌은 이번 여행의 회상을 담고 오래오래 필자 곁에 있을 것이다.

스톤헨지는 필자에게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관광객 틈에 끼어 즐거운 마음으로 스톤헨지를 세 바퀴 돌면서 스톤헨지가 전하는 메시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스톤헨지가 위치한 대지(大地)의 무한한 영지(英智)는 필자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사라져 가지만 나는 이렇게 영겁의 세월을 지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곳을 지킬 것이다. 인간들이 나의 존재로부터 무한의 지혜와 사랑을 배워 인간들도 대자연처럼 살아가라고…."

역사의 순환

대한민국에는 고인돌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기록상으로는 영국과 대한민국은 역사상 관련 없는 것 같지만 고대 돌 문명의 흔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역사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 필자의 직감이다.

대자연에는 순환의 법칙이 있다. 인간에게 탄생과 죽음이 있듯 역사도 탄생-멸망-재탄생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순환한다. 2만년이 넘는 아주 옛날에 지구의 동양과 서양에는 고대 돌 문명이 있었다고 한다. 인간이 돌로부터 지혜를 배우면서 대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21세기 인류가 대립, 빈곤과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자연의 영지를 따르는 의식의 혁명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 지구상에 역사의 순환으로 행복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대가 인류 앞에 현실화되기를 기원한다.

스톤헨지를 끝으로 5일간의 여정을 마친 후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짧지만 필자에게는 의미있는 여행이었다. 인간에게 여행이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여행은 자유를 통해 일상에서 얻기 힘든 삶의 가치와 창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원고 접수일 2008년 5월 6일〉